

‘섬의 날’ 첫 국가행사 전남서 열린다

8월8일 기념일 제정
시군 신청받아 개최지 확정
섬 가치·중요성 공유의 장

오는 8월8일 첫 국가행사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전남에서 개최된다. 전남도는 시군 신청을 받아 객관적 평가와 정부 협의를 거쳐 기념행사 개최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8월8일 섬의 날 첫 기념행사를 전남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섬의 날'은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안해 제정된 국가기념

일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에 있는 도서문화연구원·섬연구소 등 섬 관련 기관·단체, 지역인문 등과 함께 '미래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섬의 날' 제정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매년 8월8일을 '섬의 날'로 정했다. 8월8일은 국민이 기억하기 쉽고, 8월이 섬지역 먹거리·볼거리가 가장 풍성하며, 여름 휴가철과 함께 섬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점, 8이라는 숫자가 섬의 무한한 발전가

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 때문이다. 전남도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를 위해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섬의 날 행사 준비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당초 3억 원이었던 정부예산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방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섬의 날 전남 유치 확정에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추진해온 섬의 날 제정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국제 녹색섬 포럼 등 관련 행사 개최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 평가 등 객관

적 과정을 거친 뒤 행안부와 협의해 행사 개최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최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의 날은 전국 섬이 하나가 돼 섬이 가진 독특한 생태, 문화자원을 알리고 섬과의 교류 인구를 확대해 섬과 도시민의 교류 장이 될 것"이라며 "알차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남이 명실상부한 섬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화순·영광·영암에 산단 조성

3500개 일자리 창출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해남 옥동산단과 화순 도곡2농공단지 등 모두 4곳 71만7000㎡가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해 전남도가 제출한 4곳의 산단 지정을 확정했다. 산단 지정이 확정된 곳은 해남 옥동일반산업단지와 화순 도곡제2농공단지, 영광 묘량농공단지, 영암 선황농공단지 등 총 4 곳이다. 이들 산단이 조성되면 3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동산단은 해남군 황산면 일원 19만 5000㎡ 부지에 ㈜토우남해중공업이 7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현재 부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도곡제2농공단지에는 화순군 도곡면 일원 12만㎡에 156억원을 들여 화순군이 공영개발한다. 유치 업종은 전기·전자업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묘량농공단지에는 영광군 묘량면 일원 21만4000㎡ 규모로 조성되며 기계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한다. 영광군이 107억 원을 투자해 공영개발에 나선다. 선황농공단지는 영암군 미암면 일원 18만8000㎡에 민간기업인 와이엔아이㈜가 138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된 일반산업단지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특화농공단지는 단지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화순·영광·영암 등 4곳에 새 산단이 조성되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관련법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인근 기반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산업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공분실 509호실서 나오는 박종철 열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 부지(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 32주기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박 열사와 박 열사 아버지 박정기 씨의 영정을 들고 대공분실 509호에서 나오는 박 열사를 상징하는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무료급식 단가 6년만에 인상

광주시가 경로식당 등에서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지원단가를 6년 만에 인상한다. 무료급식은 경로식당과 거동불편자 도시락 배달사업 등 2개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시는 무료급식 단가를 2500원으로 책정해 지원해왔다. 이번 인상에 따라 무료급식 단가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500원 오른 3000원으로 책정된다. 이

를 위해 광주시는 2019년 무료급식 지원 예산을 36억4500만원으로 전년(29억4800만원)보다 6억9700만원 증액했다.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결식우려 노인 보호를 위해 관내 자치구별 노인복지관 등 32곳에서 하루 평균 4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300일(일부 250일) 동안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5·18행사 추진 단체 공개입찰

사업비 투명 집행 기대
21일까지 연장 제공

광주시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민간 위탁기관 선정에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광주시는 13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단체를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지난 10일 냈다"고 밝혔다. 5·18 관련 행사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광주 지역 비영리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행사 추진 단체를 선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엄격한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해 보다 투명한 사업비 집행·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마다 행사를 마치고 조직이 해체되는 기존의 비상설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 추진 단체를 상설화하고 최소 2년 동안 행사 추진 업무를 맡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행사 추진단체로 선정되면 올해 사업비 8억5100만 원을 지원받아 5·18전야행사나 5·18관련 행사 나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내년엔 40주년을 맞은 5·18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인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행사 추진단체에 6억~8억원씩을 지원해 왔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꾼 모집 공고도 냈지만, 신청 단체가 1곳에 불과해 오는 2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재공고를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순천시·보성군·무안군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개인·단체·시군 발굴 첫 시상

순천시·보성군·무안군이 제1회 전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민의 안전실천 의지를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문화의 가치, 안전의식에 관한 애민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전남도는 안전전남을 실현해 온 개인과 단체, 시군을 발굴해 첫 시상했다. 개인 부문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교육·안전시설 개선 등 실적을 거둔 강순례 녹색어머니중앙회 전남연합회장이 수상했

다. 강 회장에게는 상패와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민간단체 부문에서는 가족 전염병 차단에 선제 대응해 지난 2년동안 양계농가에서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새대안양계협회 광주·전남도 지회,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남도회,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제안 및 참여 실적이 우수한 새 전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3개 단체가 영예를 안았다. 이들 단체에는 상패(청자매병)와 시상금 3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재난안전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은 지자체 부문에서 다산안전대상을 받았다. 이들 시군에는 상사업비로 각각 1억원이 지원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산업 민간공원 2단계 업체 변경 이의신청

광주시, 1주일 이내 최종 결정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에 따라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 금호산업(주)이 11일 광주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의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그 지위를 (주)호반에 건네준 금호산업이 광주시가 보낸 사업자 취소 통지문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서)를 11일 제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는 금호산업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1주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산업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중단시키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교체와 관련 14일 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락주세요!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 ▶ 1억 3천 2백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